

전북 스타트업 동반성장 길 찾아

전북중기청, 24~26일 남원서 '패키지 워크'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24일부터 26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축된 창업붐을 확산하고 혁신성을 갖춘 여러분야의 스타트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 등 7개 기관과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00여개의 스타트업이 3일간 빛을 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창업붐에 대한 열기를 다시 확산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스타트업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로컬 스타트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특히 24일 개막식 행사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WEEK'를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밋업 &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25일부터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해외시장에서 검증하는 ▲글로벌 헬린저 행사를 진행하고 초기창업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JB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 ▲G-ROAD 판로개척 라이브커머스마켓 ▲초기창업패키지 해외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리고 창업한지 3~7년에 접어든 도약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 성장할 수 있도록

▲테크 브릿지 비즈니스 매칭 밋업을 운영, 실험실의 연구성과가 사업아이템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호남권 스타트업 웹 콘서트 2021 행사와 ▲실현실 Pre-startup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주최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이번 '전북 스타트업 패키지 워크'를 통해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처음 만들어진 만큼 정부의 창업지원을 스타트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자원순환 ESG경영으로 나눔도 으쓱
실시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ESG경영 캠페인의 일환으로 (재)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지난 1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나눔 활동을 위한 기부 판매 행사를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LX,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공고 내달 3일까지 접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가 민간과 동반성장을 기반으로 2022년 사업을 조기 착수를 위한 러닝 파트너를 찾는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촉랑·조사를 함께 수행할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공고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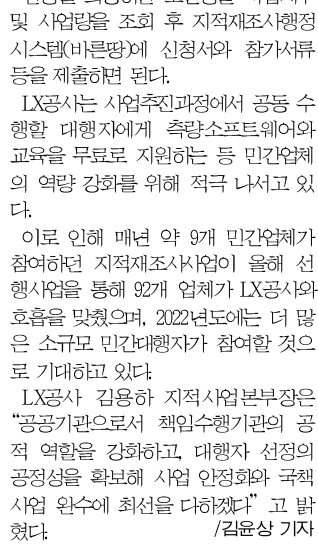
모집기간은 12월 3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 LX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736개 사업지구(약 32만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개요, 신청자격·참여조건, 선정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소관청별 사업지구 및 사업량을 조회 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에 신청서와 참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LX공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공동 수행할 대행자에게 촉랑소프트웨어와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민간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9개 민간업체가 참여하던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선행사업을 통해 92개 업체가 LX공사와 호흡을 맞췄으며,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소규모 민간대행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X공사 김용하 지적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수행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대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사업 안정화와 국책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신중앙시장 상인회 회원에

'사랑의 어부바박스' 전달

전주중앙신협(이사장 한경희)은 전주시 태평동소재 '신중앙시장상인회'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진 상인회 회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드리고자 방역에 필요한 물품(방역용품, 앞치마, 마스크 등)들로 구성된 '사랑의 어부바박스'를 만들어 상생의 나눔 행사를 지난 18일 진행했다.

나눔행사에 앞서 신중앙시장상인회(회장 반봉현)와 '전통시장 어부바박스'를 통해 앞으로 신중앙시장 홍보 및 이용촉진, 금융지원사업, 상인회 회원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전주중앙신협 한경희 이사장은 어려움에 지친 상인회 회원들을 돌아보고 "친협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운동을 통해 코로나19 극복하고 항상 함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에너지효율 향상 이바지

김경식 전주페이퍼 공장장, 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전주페이퍼 공장장이 최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진행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전주페이퍼는 에너지 다소비업체로서 일찍이 에너지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투자 및 절감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위해 초점을 맞춰 가고 있다.

주요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열병합 발전소 2기를 바이오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로 전환 공적으로 보내는 스팀을 터빈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후 공정으로 보내는 터빈발전기 설치 및 공정폐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설치해 신재생발전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ESS 설비 설치, 인버터 설치, 고효율 모터 도입 및 LED 전 등 교체 등을 통해 전력절감을 하여 온실가스감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통해 최근 5년간 340억 원의 에너지 설비 투자, 에너지비용 102억원 절감을 이끌어내는 등 산업체의 효율 향상을 통한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김경식 공장장은 "최근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절감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에너지절감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또한 ESG 경영에 근접하게 폐지를 재활용한 친환경 활동 안전 및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 그리고 공장운영에 있어 준법과 윤리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주페이퍼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참된 실천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활동 결과 현재 연속으로 녹색기업 6회 재지정 됐으며, 상생/협력활동으로 사내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무재해 목표달성 시상제도 운영 및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19일 진안군청 앞 광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돼지 한돈 소비촉진 시사회'를 가졌다.

'우리돼지로 만든 삼겹살입니다'

전북농협, 김장철 맞아 '한돈 소비촉진 시사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와 함께 지난 19일 진안군청 앞 광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돼지 한돈 소비촉진 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시사회에는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구경분 대한한돈협회 진안지부장,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 송재근 무진장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장날을 맞아 광장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수육 및 구이를 개별포장 후 무료 증정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삼겹살과 목살 등 구이용으로 편중된 소비패턴을 감안해 다양한 부위로 수육을 제공함으로써 부위별 색다른 맛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자 노력했다.

한돈의 지지부 위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B1, 인 칼륨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어린이, 학생, 수험생의 영양식으로도 좋으며 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을 도입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 땅에서 정성껏 키운 우리 돼지고기의 이름 '한돈'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부위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와 한돈의 다양한 요리로 가족 간의 정과 건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aT 김춘진 사장, 美 중부지역 우리식품 진출상황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한국식품유통업체인 Hatai Global Inc(대표 심재국)를 방문해 시카고 및 미중부지역의 한국식품 진출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공사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시카고 한국식품 유통매장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해상운임 상승과 항만작체에 따른 물류상황 등 수출 애로를 청취한 뒤, 한국식품의 판매시장 확대를 위해 우수성 및 안전성 홍보

등 차별적 마케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농수산물품의 대미 수출은 김치, 인삼,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지속 증가하여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대비 10.5% 늘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수출업체 해외 운송의 물류난 해결을 위해 국적선사와 선박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올해 농수산물품 수출 100억불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